

남북 경험 유망 분야 및 바람직한 협력 모형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광철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6월 12~14일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경제 격차나 사업 구조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경험 분야는 인프라 구축 수요와 관광 자원 활용 그리고 생필품에 관련된 건설, 철강업, 관광, 가전 분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중화학공업, 산업 전자, 정보통신과 같은 부문이 유망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이들 산업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유망 분야는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기술 혁신의 주역인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은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케 하는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발전없이 기타 산업의 발전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 분야는 경제 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손쉽게 북한과 경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경험 초기에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가전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망과 같은 정보 인프라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선점 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므로, 북한 경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국적 의존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개발 수요는 있으나 이를 감당할 만한 자원과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남북한간 경험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동북아 지역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일본과 함께 기술 및 자본을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 공장 부지 등과 같은 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동북아, 미국, 일본, 유럽 시장 등을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격차가 심하고 북한은 현재 심각한 외화난과 에너지난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민간 기술자들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실상 및 산업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제 협력 성공의 선결 과제이다. 또한 북한의 지급 결제 능력 제고를 위해 ADB, UNDP 등 국제 경제 기구 등과 협력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이

6월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경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남북한간 산업 격차를 감안하여 장단기별로 경제 협력 유망 분야를 평가해보기로 한다.

남북한 산업의 수준 격차와 사업 기회

현재 북한 주요 산업은 한국의 70~80년대 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수준 격차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 주요 경제 협력 방향은 자원 개발, 북한의 개발 수요 증대 부문에 대한 필요 물품 공급과 북한의 특수 자원 수입 등 남북한 상품 무역, 미성숙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과 개발 합작 투자 등이 유망하다.

산업별 유망 진출 분야

시기별·산업별 남북한 경제 협력 유망 분야를 남북 경험의 용이성, 북한의 경제적 필요도, 남북한 경제 격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건설, 철강업, 관광, 가전 분야가, 중장기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산업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기별로는 단기적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과 함께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고는 경제 및 산업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프라 개발은 경제 협력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인프라 개발 수요로 인해

〈표 1〉 주요 업종별 남북한 격차

업종	단위	생산 능력		생산 실적		기술 격차 한국 대비 북한의 기술 수준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제강	만 톤	3,532	598	3,374.5	172.8	80년대 초반
공작기계	만 대	33	3.5	7.4	1.4	80년대 중반
자동차	만 대	315.3	3.3	231.2	1.0	70년대 후반
조선	만 G/T	517.0	21.4	517.0	5.1	70년대 초반
전력	만 kW	2,875	723.7	-	-	-
발전력	억 k조	-	-	1,650	231.3	-
화석	만 톤	187.4	18.0	168.7	5.8	70년대 초반

자료: 산업은행 등.
주: 1994년 기준.

〈표 2〉 시기별 남북 경제 협력 유망 분야

시기	분야	최대 수혜 업종
단기 (1~3년)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및 낙후된 인프라 개발	건설, 철강, 관광, 가전
중기 (3~7년)	북한의 본격적 중공업화에 따른 중화학공업 분야 기술·인력 제휴 및 합작 투자	중화학공업, 산업전자, 정보통신(첨단기기)
장기 (7년 이후)	산업화 성숙에 따른 고기술 산업 분야	자동차, 정보통신(인프라)

주: 2000년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 경협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프라 개발에는 필요 자재 수요가 있어 철강 업종의 경협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기술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본격적인 개발 투자가 나타날 것이며, 특히 산업 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나 정보통신 인프라와 같은 고기술 산업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 산업은 단기적으로 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이 유망하다. 먼저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공동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동 용 소규모 발전 시설이나 공동내 인력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과 같은 부대 시설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남북한간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 내의 공단간 연결을 위한 주요 도로 확장 및 보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이 서서히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 지역내 물류 단지의 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성장 단계에 맞춰 주택 건설 사업이나 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는 초기에는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해 자동차 부품 가운데 위탁 생산이 가능한 저기술 분야가 유망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용 배터리, 자동차 키, 시트 커버 등은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시트 제작이나 범퍼 도장 등 중기술 수준의 부품 생산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잉여 설비를 이전해 중 소형 승용차의 조립 생산이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저가 자동차 생산 기지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석유화학은 북한이 약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유나 저기술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중공업 육성을 위한 설비 및 부품 수요에 대응해 정밀도가 낮은 산업용 기계, 농업용 기계와 같은 경공업용 기계 제작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선 사업 가운데 북한의 유희 노동력

〈표 3〉 시기별·산업별 남북 경제 협력 유망 분야

업종	단기	중기	장기
건설	- 남북한 공단 개발 및 부대 시설, 공단용 소규모 발전 시설, 남북 전력선 연결 사업, 공단내 주택 건설 사업, 남북 공동 관광지 개발 사업	- 발전소 건설 사업, 남북한 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등 물류 인프라 시설(도로, 철도, 항만), 북한내 주요 도로 확장 및 보수(공단과 공단 연결), 북한 지역내 물류 단지 사업, 시베리아 연결 철도 사업, 주요 철도 복선화 사업, 시베리아가스 수송 사업	- 주요 도시 오피스 건축, 주택 건설 사업, 공항 사업 등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 정보고속도로 사업
자동차	- 저기술 부품 위탁 생산 - 자동차용 배터리, 자동차 키, 시트카바 등	- 시트 제작, 범퍼 도장 등 중기술 부품 협력 - 트럭 등 상용 완성차 조립	- 국내 잉여 설비 이전 → 중소형 승용차 조립 생산 -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저가 Asian Car 생산 기지화
석유화학	- 비료 중심의 농약 제품 협력	- 저기술 범용 제품(LDPE, PVC, EO/EG, AN 등) 협력	- 정유, 범용 석유화학 제품 생산
중공업	- 북한의 중공업 육성을 위한 설비 및 부품 수요에 대응 - 조선 부문 유희 시설의 북한 이전 - 북한 노동력 활용한 선박 해체 부문 활성화 - 농업용 기계, 원동기 등 경공업용 기계 제작 공장 최선화	- 북한의 중공업화에 의한 산업 설비 수요 증가로 플랜트 수출 증대, 숙련 기술자 활용 - 수리 조선 부문 협력 - 정밀도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NC 선반 등 산업용 기계 제작 - 북한 인력을 활용한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 추진	- 산업화 성숙에 따른 고기술 산업 설비 수요 증대 및 고급 기술 인력 활용 - 신조선 건조 부문 협력 - 선박용 엔진 등 고급 산업용 기계 제작
철강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철강 수요 증가에 대응 -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철구조물, 주물 등 노동 집약적 제품을 북한에서 도입	-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생산을 북한내 설비 재구축 및 남한으로부터의 이전을 통해 확대함으로써 남한내 제품 구조는 고부가가치화	- 코크스 등 철강 생산 원료 설비 재구축 - 북한내 제철소 최선화, 또는 신설 - 이를 통해 남한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료, 강판 제품, 핫코일 등의 생산·유입을 도모

주: 2000년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을 활용할 수 있는 선박 해체 부문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기술 수준 향상에 맞춰 정밀도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용 기계를 생산하거나 북한 인력을 활용한 자원 개발도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산업의 성숙화에 따라서 고기술 산업 설비의 수요가 증대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에는 선박용 엔진과 같은 고급 산업용 기계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철강 산업은 우선 낙후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철강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對중국 수출 전진기로서의 역할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남한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조강류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

하여 남한내 제품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면서 북한의 설비를 재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내 제철소 설비를 최신화해 남한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료, 강판 제품, 핫코일 등의 생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최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유망 분야는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 분야로 분석된다.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임가공 협력을 통해 PC 및 TV와 같은 노동 집약적 가

〈표 4〉 전자 및 정보통신 부문 경제 협력 유망 분야

	단기		중기		장기	
	협력 형태	유망 분야	협력 형태	유망 분야	협력 형태	유망 분야
시장 및 생산 기지	- PC 및 TV와 같은 생활 가전 공급 - 임가공 협력 - 생산 공장 건설	- 저가 PC - 보급형 TV - 노동 집약적 가전 제품 및 전자 부품	-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지형상 유리) - 회로 설계 하우스 설립 및 단순 설계 용역	- 무선통신 장비 - 무선통신 단말기 - ASIC(주문형) 반도체 - PCB(인쇄 회로 기판)	-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 북한 강점 가진 특수 전문 분야 발굴, 투자	- 광케이블 - 광통신 장비 - 인터넷통신 장비 - 위성체 장비
러·중 협력 교두보	- 동북아 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 설립	- 가전 제품 - PC - 통신 단말기			- 남·북·러·중 공동연구센터 설립(러·중 고급 인력 활용)	- 소프트웨어 - 정밀 전자 부품

전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기지화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단순 설계 용역 등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북한이 강점으로 가진 전문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등 고기술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고급 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소프트웨어나 정밀 전자 부품과 같은 고기술 분야의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북한 경제 개발 모형

남북한 경제 및 산업 발전 격차, 최근 세계적 기술 혁신 동향, 북한의 기초 과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 개발 모형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개발 형태인 '안행형 발전 단계' 전략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행형 발전'이란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등과 같이 순서에 따라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산업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추격형(catch-up) 모델로도 불린다. 이 모델에서는 일국 중심의 개발 투자 사업 모델이 활용된다.

그러나 남북한 경험 모델은 '첨단 산업 집중 육성에 의한 시너지 유발 효과' (도약형 모델: leapfrog 모형) 전략을 활용하는 '다국적 의존형(interdependent) 비즈니스 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남북한 간 산업 수준 격차로 인해 단기간 내에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 분야가 제한적이며 둘째, '안행형 발전' 모형에서 추구하는 중화학

〈표 5〉 남북한간 도약형 경제 협력 모형의 개념

유형	추격형	도약형
의미	단계별 산업 발전 전략	첨단 산업 집중 육성 전략
시대 배경	산업화 시대	정보·지식 혁명 시대
산업별 파급 효과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순으로 개발하여 산업별 시너지 효과 미약	첨단 산업 발전으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개발 비용 및 기간	물적 자본 중심으로 개발 비용 과다 및 개발 기간 장기	지식 자본 중심으로 개발 비용 절약, 개발 시기 단축
가능성	노동력 이외 인프라 및 개발 자금 미흡, 아시아 경쟁국 등과의 경쟁 치열	북한의 수학, 물리학 발전, 군사 과학 분야 상대적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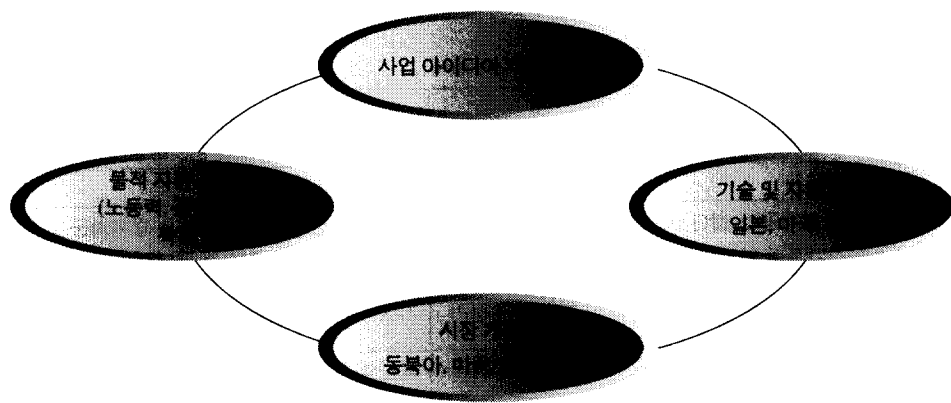
분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고, 중화학공업 분야는 이미 아시아 개도국이 많은 투자를 실시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디지털 혁명' 또는 '바이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기술 혁신 구조 속에서 기존의 산업 발전 모델을 답습할 경우 기타 산업의 경쟁력 취약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자 및 정보통신 부문은 시기별로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수학 발달 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 및 첨단 디지털 기기 제작이 가능하다. 다섯째, 북한은 전자, 정보

통신 및 생명공학 발전에 필요한 수학,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 및 군수과학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끝으로 지식 자본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은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개발 시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동북아 등을 연계한 다국적 의존형 사업 모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 의존형 비즈니스 모델이란 전자 및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가운데, 중화학공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동북아 지역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 모형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성공적인 경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사업 아이디어를

〈그림〉 다국적 의존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제공하는 한편, 미국·일본과 함께 기술 및 자본을 지원한다. 자본력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은 노동력, 공장 부지 등과 같은 물적 자본을 제공하며,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해 산업 수준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동북아, 미국, 일본, 유럽 시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의 사항과 정책 과제

남북한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경협을 성공을 극대화하는 길로 생각된다. 우선 남북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주요 산업별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외화난과 에너지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배급체제로 인해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점과 외국인 투자 유치시 필요한 결제 통화의 부재 등도 남북 경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넷째,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교역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미흡 등도 문제이다.

이러한 주의 사항과 관련한 정책 과제는 첫째, 남북한 지식 격차 해소 및 장단점 파악을 위한 학술·연구 제휴 활동 등을 추진해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산업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경제 격차를 감안한 단계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지급 결제 능력 제고를 위해 UNDP 등 국제 경제 기구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경제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지역의 주변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결제 방식을 고안해 북한의 외화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경협이 통일을 앞당기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중화학공업 경협이 군수 분야로 전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